

잡아함82. 죽원경

날짜: 3월 22nd,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88>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지제(支提)의 죽원정사(竹園精舍)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어떤 것에서 무상함과 괴로움을 보는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원하옵건대 말씀해 주소서. 모든 비구들은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색에서 무상함과 괴로움을 보고, 수·상·행·식에서 무상함과 괴로움을 보느니라. 비구들아,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존재하는 모든 색(色)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수 · 상 · 행 ·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이렇게 관찰하여 색을 싫어하고, 수 · 상 · 행 · 식을 싫어한다. 싫어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하기 때문에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이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